

서울시내 일부 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원의 배경 실태조사

| | | |
|---|---|---|
| 김 | 주 | 회 |
| 임 | 재 | 락 |
| 이 | 인 | 애 |

1. 서 론

인구 6백만명을 돌파하고 있는 서울 특별시의 공중보건 문제가 사회 여러면에서 대두되고 있는 이때, 이들의 보건을 위해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소 간호원들의 배경을 조사해 보므로써 서울특별시의 보건소 간호원의 문제점과 아울러 한국의 보건 간호 사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밑바탕이 될 근거로써 이 조사를 시도하였습니다.

간호원들의 인적 사항과 아울러 교육적 배경과 직업 사항의 취업 동기, 해외 취업 회망 여부등의 여러가지를 기초 조사 하므로써 이차 살차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에 기여 되고자 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연구 조사가 이것을 기초로 자극 되었으면 합니다.

보건소 간호원의 직급을 올리고 수당을 올려, 유능한 간호 지도자가 보건소 간호계의 장으로 되어야하고 보건소에 있어야 하는 여러가지 실체적인 애로 사항을 많이 들어 왔습니다만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적극적 활동은 결여 된 줄 압니다.

한국 간호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간호원들 스스로의 자각과 자기 발전을 위한 발触动이 필요 하리라 생각됩니다.

대한 간호 협회와 1971년도 총회의 구호처럼 개인 성장을 전체 발전의 길이며 책임 완수는 적극 신장의 길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2. 조사 대상 및 방법

ㄱ. 조사 대상 :

서울특별시 9개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원 200여명 전체를 대상으로 했으나 질문지 회수율이 좋지 않아 5개 보건소에서만 총인원 75명분이 회수되어 이것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보건소 명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ㄴ. 방 법 :

먼저 서울 특별시 보건 1과 간호계장님을 면접하고 이 조사를 위한 여러가지 내용을 검토하고 협의 하였으며 적극 협조해 주셨습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면접과 질문지를 함께 사용하였으며 질문지 내용은 부록하는 것과 같읍니다.

ㄷ. 조사 기간 :

조사 기간은 1971년 4월 7일 부터 4월 17일까지 10일간 이었습니다. 조사 기간이 족박하여 회수되지 않은 4개 보건소에 대하여는 차후 회수되는 대로 보완 발표하려 합니다.

3. 조사 결과

ㄱ. 인적 사항

1) 연령별 조사

총 인원수 75명 중 73명이 응답했읍니다. 평균 연령은 36.4세였고 26—35세군이 51%를 차지하여 대부분이고 26세 미만은 불과 4%인데 비해 36세 이상은 45%로 거의 반을 육박했읍니다.

여기서 일상 간호원의 연령군과 비교하면 재미있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표 1) 연령별 분포 상태

| 연령군 | 20~25 | 26~30 | 31~35 | 36~40 | 41~45 | 46~50 | 계 | | | |
|-----|-------|-------|-------|-------|-------|-------|-----|----|-------|---|
| 수와% | 20 | 26 | 31 | 35 | 36 | 40 | 41 | 45 | 46~50 | 계 |
| 실수 | 3 | 16 | 21 | 11 | 12 | 10 | 73 | | | |
| % | 4 | 22 | 29 | 15 | 16 | 14 | 100 | | | |

평균연령 : 36.4세

2) 결혼 상태

총 75명 중 73명이 기혼자이고 미혼은 단 두명 뿐이었습니다.

기혼자 73명을 100%로하여 배우자 동거여부를 살펴 본 결과 80%가 배우자 동거자였습니다. 지극히 적은 숫자지만 이혼, 사별, 별거자가 비슷비슷한 %로 나왔으며 무응답자 12%가 자녀를 모두 가지고 있는 자이므로 기혼자는 틀림 없으나 이혼 사별 별거를 밝히고 싶지 않은 심리 작용이 있다고 보아 배우자 동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표 2) 기혼자 중 배우자 동거여부 조사

| 결혼상태 실수 및 % | 배우자 동거 | | | | | | 계 |
|----------------|--------|----|----|----|----|-----|---|
| | 이혼 | 사별 | 별거 | 무당 | 계 | | |
| 실 수 | 58 | 3 | 2 | 1 | 9 | 73 | |
| % | 80 | 4 | 3 | 1 | 12 | 100 | |

3) 자녀수

기혼자 73명 중 자녀가 없는 자는 불과 4명이며 3명의 자녀를 가진자가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자녀수는 약 2.5명이며 2~3명의 자녀

(표 3) 연령별 자녀수 분포도

| 자녀수 연령군 | 0 | 1 | 2 | 3 | 4 | 5 | 6 이상 | 계 |
|------------|-------|----|----|----|----|---|------|-----|
| | 20~25 | 1 | | | | | | 1 |
| 26~30 | 3 | 6 | 5 | 2 | | | | 16 |
| 31~35 | 1 | 4 | 5 | 8 | 3 | | | 21 |
| 36~40 | 2 | 3 | 6 | 1 | | | | 12 |
| 41~45 | 1 | 3 | 3 | 1 | 2 | 1 | | 11 |
| 46~50 | | 2 | 4 | 3 | | | | 9 |
| 연령미상 | | | 1 | | 2 | | | 3 |
| 합계 | 4 | 14 | 18 | 24 | 8 | 4 | 1 | 73 |
| % | 5 | 19 | 25 | 33 | 11 | 5 | 2 | 100 |

를 가진자가 전체의 반 이상이 되며 4명 이하를 가진 자가 대부분으로 82%를 차지 했습니다.

연령별 남자수를 보면 나이가 젊은 사람일수록 비교적 자녀수가 적었고 4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자는 최고 연령군이 31~35세군 이상자에게서만 나타났습니다. 26세~35세인 이들에게는 평균 2.5명의 자녀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었읍니다.

4) 가족수

평균 가족수는 본인을 합하여 6.3명이던 5명 이상자가 62명, 5명이하 가족수를 가진 자는 11명, 5~7명의 가족수 군이 가장 많는 4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4) 가족 수별조사

평균가족수 : 6.3명

| 가족수군 | 2~4 | 5~7 | 8~10 | 11~13 | 무당 | 계 |
|--------|------|------|------|-------|-----|-----|
| 실수 및 % | 20 | 26 | 31 | 35 | 2 | 75 |
| 실 수 | 11 | 46 | 13 | 3 | 2 | 75 |
| % | 14.7 | 61.3 | 17.3 | 4 | 2.7 | 100 |

평균 가족수와 자녀수를 비교 검토해 볼 때 대가족 제라고는 할 수 없고 대부분 핵 가족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5) 근무중 가정 관리자를 조사한 결과 식료가 35명 (46.7%) 시어머니 및 친척 30명 (40%)로써 대부분 65명 (86.7%) 가 가정 관리자가 있으며 단 10명 (13.3%) 가 가정 관리자 없는 불안정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짐계되었읍니다.

(표 5) 가정 관리자 별조사

| 가정 관리자별 식 모 실수 및 % | 친 족 | | | | | 없 음 | 계 |
|--------------------------|------|------|------|-----|----|------|-----|
| | 시어머니 | 친정여 | 기타 | 친척 | 소계 | | |
| 실 수 | 35 | 14 | 14 | 2 | 30 | 10 | 75 |
| % | 46.7 | 18.7 | 18.7 | 2.6 | 40 | 13.3 | 100 |

2. 교육 배경

1) 간호교육

초급 대학 과정의 간호 학교 출신이 13명으로 (17.3%) 중등 교육 과정인 간호 고등 기술 학교 및 구제 간호 고등 학교 출신이 44명으로 (58.6%)

(표 6)

출신 간호학교 별 조사표

| 교육과정별 실수 및 % | 간호학교명 칭별 | | | 초급대학과정 | | | 중등교육과정 | | | 양성소 및 겸정고시 | | | 총계 |
|-----------------|----------|-----------|------|--------|------|-----|--------|------|------|------------|------|-----|----|
| | 간호 학과 | 군가호 학과 | 소계 | 간기교 | 간고교 | 군간교 | 소계 | 겸정 | 양성소 | 양성소 겸정 | 소계 | | |
| 실 수 | 12 | 1 | 13 | 33 | 8 | 3 | 44 | 8 | 8 | 2 | 18 | 75 | |
| % | 16 | 1.3 | 17.3 | 44 | 10.7 | 3.9 | 58.6 | 10.7 | 10.7 | 2.7 | 24.1 | 100 | |

(표 7)

특수 교육 배경별 조사표

| 교육종별 실수 및 % | 보전 간호원 | | | 가족계획 2주 | 무경험자 0 | 총계 |
|----------------|-----------------------|-------|-------|------------|-----------|-----|
| | 교육기간별 1년 (CPHN) | 1~3개월 | 4~5개월 | | | |
| 실 수 | 13 | 20 | 4 | 37 | 32 | 90 |
| % | 17 | 26 | 5 | 48 | 43 | 119 |

양성소 및 겸정 고시 출신이 18명으로 (24.1%)
이고 간호대학 출신은 전부 하였습니다.

2) 특수 교육 배경은 전혀 재 교육 또는 특별
교육 혼련은 받지 않은자가 21명으로 28% 차지
하며 교육 이수자가 54명으로 72%를 나타냈음
니다. 교육 이수자 54명 중 보건 간호원 1개월~1
년까지 받은 자가 37명으로 48%, 32명 43%는 2
주간 가족 계획 교육 이수자에 불과합니다.

총 69명 교육 이수자로 되어있는 것은 한 사
람이 한 가지 증가되었습니다. 실수는 54명 이니
까 15명 이내의 사람만이 한 가지 이상의 재교
육을 받은 결과로 볼 수 있었습니다.

3) 인문 교육 배경을 보면 응답자 70명 중 고
등 학교 이하 학력자가 50명으로 71%를 차지하
며 대학 졸업자는 불과 2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리므로 인문 교육 배경 역시 좋다고 볼 수 없었
습니다.

(표 8) 인문 교육 배경별 조사표

| 출신교별 실수 및 % | 총출 | | | | | | 계 |
|----------------|------------|----|------|----|----|-----|-----|
| | 고등여 학교출 | 고졸 | 초대졸 | 대졸 | 기타 | 계 | |
| 실 수 | 28 | 22 | 12 | 5 | 2 | 1 | 70 |
| % | 40 | 31 | 17.5 | 7 | 3 | 1.5 | 100 |

2. 족업사항

1) 경력 사항 조사

대상자 75명 중 보건 분야 5년 이상 경험자가
24명으로 32%였으며 5년 미만 경험자가 51명으
로 68%를 차지 했습니다.

임상분야 5년 이상 경험자는 33명으로 44%였
으며 5년 미만 경험자가 30명으로 40%를 차지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조사 대상자들이 보
건 분야 보다 임상 분야 경험이 더 많다는 결과
입니다.

2) 보건소 계속 근무 년한을 보면 3년 미만
경력자가 39명이나 되고 5년 이상 계속 근무자
는 20명정도입니다.

(표 9) 경력별 조사표

| 근무종별 근무기간 | 보건소 | | | 계 |
|--------------|------|----|---------|------|
| | 보건분야 | 내국 | 내국·임상분야 | |
| 1년 미만 | 14 | | | 3 16 |
| 1, 1~3년 | 20 | 17 | 2 | 23 |
| 3, 1~5년 | 16 | 8 | | 15 |
| 5, 1~7년 | 10 | 17 | | 9 |
| 7, 1~9년 | 9 | 2 | | 7 |
| 9, 1~11 | 3 | 7 | | 2 |
| 11, 1년 이상 | 2 | 7 | | 2 |

3) 해외 임상 경험자가 5명 있는데 비해 해외
보건분야 경험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4) 전 근무지는 종합병원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보건소에서 보건소로 온 사람이
였고 기타 군·병원 조산원·의무실 학관, 보육원
등 다양 하였습니다.

5) 현 직급을 임시직이 47명으로 62.7%를 차
지하여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이 5급을이 14명
으로 18.6%였으며 5급 갑이 7명 9.3%, 4급 갑,
을이 7명 9.3% 정도였습니다.

(표 10)

전 근 무 지 별

| 전 근무지별 실수 및 % | 보건소 | 총합병원 | 군병원 | 조선원 | 의부실 | 학 교 | 가족계획 | 보육원 | 무응답 | 계 |
|------------------|-----|------|-----|-----|-----|-----|------|-----|------|----|
| 실 수 | 12 | 19 | 4 | 1 | 1 | 1 | 1 | 1 | 35 | 75 |
| % | 16 | 25.3 | 5.3 | 1.3 | 1.3 | 1.3 | 1.3 | 1.3 | 46.9 | % |

(표 11) 현 직급별 조사

| 직급별 실수 및 % | 4갑 | 4을 | 5 갑 | 5 을 | 임시 | 무응답 | 계 |
|---------------|-----|----|-----|------|------|-----|-----|
| 실 수 | 1 | 6 | 7 | 14 | 40 | 7 | 75 |
| % | 1.4 | 8 | 9.3 | 18.6 | 53.2 | 9.3 | 100 |

6) 여기서 현 직급과 현직 계속 근무 년한을 살펴 보았습니다. 4급 이상자는 모두 5년이상 근무자였고, 임시직도 5년이상 10년가까이 계속 근무자가 5명이나 나타나는 것을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읍니다. 총 인원 75명중에서 무응답자 9명이 있었으므로 도표상 총 인원은 66명으로 나왔습니다.

(표 12) 현직급과 현직 계속 근무 년한

| 근무년한 현 직급 | 1년 미만 | 1~3 | 3~5 | 5~7 | 7~9 | 9~11 | 11년 이상 | 계 |
|--------------|----------|-----|-----|-----|-----|------|-----------|----|
| 4 갑 | | | | | | 1 | 1 | |
| 4 을 | | | | 2 | 2 | 1 | 1 | 6 |
| 5 갑 | 3 | 2 | | 1 | | | | 6 |
| 5 을 | 3 | 5 | 3 | 3 | | | | 14 |
| 임시 | 13 | 13 | 8 | 2 | 3 | | | 39 |
| 계 | 16 | 21 | 13 | 7 | 6 | 1 | 2 | 66 |

(표 13)

직급별 현직장에 대한 계속 종사 희망여부

| 직급별 | 4 갑 | | | 4 을 | | | 5 갑 | | | 5 을 | | | 임 시 | | | 계 | | |
|-------------|--------|---------|--------|--------|---------|--------|--------|---------|--------|--------|---------|--------|--------|---------|--------|--------|---------|--------|
| 일 월 수 | 1 | | | 6 | | | 7 | | | 14 | | | 40 | | | 68 | | |
| 여 부 | 예 예 | 아니 요 | 무 답 |
| 실 수 | 1 | | | 2 | 2 | 2 | 2 | 4 | 1 | 6 | 7 | 1 | 18 | 20 | 2 | 29 | 33 | 6 |
| % | 100 | | | 33.3 | 33.3 | 33.3 | 28.6 | 57.1 | 14.2 | 42.9 | 50 | 7.1 | 45 | 50 | 5.0 | 42.6 | 48.5 | 8.9 |

하는 질문에 원하는 자가 15명으로 20%이고 원하지 않는 자가 60명으로 80%를 나타내며 대부분 이동을 싫어하고 있었습니다.

5) 보건소 취업동기로서 “거리가 가까워서”라는 대답자가 28명으로 37%이고 “보건 사업이 좋았어서”가 24명으로 32% “근무 시간이 편리해서”가 20명으로 27%를 나타냈고 “임상분야 취직

근. 기타사항

1) 현 직장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질문에 전체 68명 중 원하는 자가 29명으로 42.6%이고 원하지 않는 자가 33명으로 48.5%이며 무응답자 6명으로 8.9%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현 직장에 계속 종사 희망여부를 조사해 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전체적인 경향으로 봐서 계속 종사 희망여부가 비슷하나 5급 이하는 현직장에 대한 계속 종사 희망자가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5급 갑의 경우 현 직장에 계속 종사를 희망하지 않는 경향이 가장 큰 비율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2) 앞으로 보건분야 훈련 더 받기 원하는가의 질문에 원하는 자가 34명으로 45%이고, 원하지 않는 자가 38명으로 51% 이었으며 무응답 3명으로 4%로 나타났습니다.

3) 해외 직장 희망여부는 희망자 41명으로 56%이고 비 희망자 23명으로 30.7%이었으며 무응답자 11명으로 16%를 나타냈습니다.

4) 시내·보건소간의 인사 이동을 원하는가

이 어려워서”는 응답자가 한 사람도 없었읍니다. 기타 %는 무응답자였습니다.

6) 간호 교육 이수 과정이 보건 사업 수행에 충분히 이용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충분하다”가 17명으로 23% “적당하다”가 24명으로 32% “불충분하다”가 23명으로 31%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14%는 무응답자였습니다.

(표 14)

해외 취업 희망여부에 따른 연령비교

| 희망여부＼연령별 | 21~25 | | 26~30 | | 31~35 | | 36~40 | | 41~45 | | 46~50 | | 계 | |
|----------|-------|-----|-------|-----|-------|-----|-------|------|-------|------|-------|-----|----|------|
| | 실수 | % | 실수 | % | 실수 | % | 실수 | % | 실수 | % | 실수 | % | 실수 | % |
| 희망 | 3 | 100 | 12 | 75 | 12 | 57 | 7 | 63.6 | 4 | 33.3 | 2 | 20 | 40 | 54.8 |
| 비희망 | 0 | 0 | 4 | 25 | 7 | 33 | 4 | 36.4 | 4 | 33.3 | 4 | 40 | 23 | 31.5 |
| 무응답 | 0 | 0 | 0 | 0 | 2 | 10 | 0 | 0 | 4 | 33.3 | 4 | 40 | 10 | 13.7 |
| 계 | 3 | 100 | 16 | 100 | 21 | 100 | 11 | 100 | 12 | 100 | 10 | 100 | 73 | 100 |

(표 15)

해외 취업 희망여부와 자녀수 비교표

| 희망여부＼자녀수 | 0 | | 1 | | 2 | | 3 | | 4 | | 5 | | 6 이상 | | 계 | |
|----------|--------|-----|----|-----|----|------|----|-----|---|------|---|-----|------|-----|----|------|
| | 실수 및 % | 실수 | % | 실수 | % | 실수 | % | 실수 | % | 실수 | % | 실수 | % | 실수 | % | 실수 |
| 희망 | 3 | 50 | 62 | 86 | 11 | 61 | 8 | 35 | 5 | 62.5 | 2 | 50 | | | 41 | 54.6 |
| 비희망 | 1 | 17 | 2 | 14 | 6 | 33.5 | 11 | 46 | 3 | 37.5 | | | | | 23 | 30.7 |
| 무응답 | 2 | 33 | | | 1 | 5.5 | 5 | 21 | | | 2 | 50 | 1 | 100 | 11 | 14.7 |
| 계 | 6 | 100 | 14 | 100 | 18 | 100 | 24 | 100 | 8 | 100 | 4 | 100 | 1 | 100 | 75 | 100 |

이상의 Data를 가지고 해외 취업 희망자와 비희망자 별로 연령층, 자녀수, 결혼 상태, 경력, 학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해외 취업 희망자의 연령층을 비교해 볼 때 30세 미만에서 단연 희망도가 높게 나오며 연령층이 올라갈 수록 비희망자와 희망 여부를 결정 짓지 못한 무응답자가 높은 것은 그만큼 해외 진출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표 16) 해외 취업 희망 여부와 결혼 상태 비교표

| 결혼상태＼희망여부 | 미혼 | | 배우자 거동 | | 이혼 | | 별거 | | 사별 | | 기혼 | | 계 | |
|-----------|----|----|--------|---|----|---|----|---|----|---|----|---|----|---|
| | 실수 | % | 실수 | % | 실수 | % | 실수 | % | 실수 | % | 실수 | % | 실수 | % |
| 희망 | 2 | 34 | 1 | 0 | 0 | 0 | 2 | | | | | | | |
| 비희망 | 0 | 20 | 1 | 0 | 0 | 1 | 1 | | | | | | | |
| 무응답 | 0 | 4 | 1 | 1 | 1 | 1 | 5 | | | | | | | |
| 계 | 2 | 58 | 3 | 1 | 2 | 9 | 75 | | | | | | | |

해외 취업 희망자들의 자녀수를 조사해 보면 자녀의 수와는 별 관계 없음이 나타났습니다. 해외 취업 희망자들의 결혼상태를 조사해 보니 배우자 동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숫자가 해외 취업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또 경력을 조사해 보니 1년 미만 경력자는 단연 해외 취업 희망률이 우세했습니다. 7년 이상 경력자들에게서 단비희망자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무응답자가 경력이 많을수록 높은 현상은 그만큼 해외 취업에 관심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경력이 임상 경험, 보건분야 기타 별로 이종 들어가 있음으로 실수가 높아졌음.

해외 취업 희망자들의 학력을 조사해 보면 역시 학력에는 관계없이 취업 희망자가 많은 현상을 볼 수 있다.

(표 17) 해외 취업 희망 여부와 경력별 비교표

| 경력기간＼희망여부 | 1년 미만 | | 1~3년 | | 3, 1년~7년 | | 7년 이상 | | 계 | |
|-----------|-------|-----|------|-----|----------|------|-------|-----|-----|------|
| | 실수 | % | 실수 | % | 실수 | % | 실수 | % | 실수 | % |
| 희망 | 10 | 71 | 13 | 33 | 12 | 23.5 | 6 | 20 | 41 | 30.6 |
| 비희망 | 1 | 7 | 7 | 18 | 5 | 10 | 11 | 37 | 24 | 17.9 |
| 무응답 | 3 | 22 | 19 | 49 | 34 | 66.5 | 13 | 43 | 69 | 51.4 |
| 계 | 14 | 100 | 39 | 100 | 51 | 100 | 30 | 100 | 134 | 100 |

(표 18)

| 학 력 | 간 호 학 교 | | 고등기술학교 | | 양성소 및 경정교시 | | 계 | | |
|-----|---|--------|--------|--------|------------|--------|------|--------|------|
| | 회 희 망 여 부 실 수 및 % | 실 수 | % | 실 수 | % | 실 수 | % | 실 수 | % |
| 희망 | | 8 | 66.7 | 26 | 59.0 | 7 | 38.9 | 41 | 54.7 |
| 비희망 | | 4 | 33.3 | 14 | 31.7 | 5 | 31.1 | 23 | 30.6 |
| 무응답 | | 0 | 0 | 5 | 11.3 | 5 | 31.1 | 11 | 14.6 |
| 계 | | 12 | 100 | 44 | 100 | 18 | 100 | 75 | 100 |

(표 19) 해외 취업 비희망자의 성격 조사표

| 직장별 및 동기별 | 희망별 | 현직자 | | 계 |
|-----------|-----|-----|------|----|
| | | 희망자 | 비희망자 | |
| | 실수 | 13 | 10 | 23 |
| 희망 | 현직자 | 13 | 0 | |
| 학교 | 현직자 | 0 | 4 | |
| 가정 | 현직자 | 0 | 1 | |
| 기타 | 현직자 | 0 | 2 | |
| 무응답 | 현직자 | 0 | 3 | 23 |
| 취업 | (1) | 5 | 4 | |
| | (2) | 2 | 2 | |
| | (3) | 0 | 1 | |
| 등기 | (4) | 7 | 0 | |
| | (5) | 0 | 0 | |
| 무응답 | 현직자 | 2 | 3 | 23 |
| 소계 | | 16 | 10 | 23 |

1) 현직 희망자 13명 중 취업 동기가 한 가지 이상 있는 자를 포함하므로, 숫자가 16명이 됨.

2) 취업 동기 내용

- (1) 거리가 가까워서
- (2) 근무 시간 제도가 편리해서
- (3) 일상 분야 취직이 어려워서
- (4) 보건 사업이 좋아서
- (5) 기타

4. 총괄 및 고안

1) 평균 36.4세가 평균이고 26세—35세 평균이 51%에 해당되고 26세 미만이 4%에 불과한데 36세 이상은 45%로 많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2) 결혼 상태를 보면 기혼자가 97.4%이고 미혼자는 2.6%로 나타났으며 기혼자 중에는 배우자 등거자가 80%로 나타났습니다.

3) 자녀수는 평균 2.5명이고 4명 이상 가진 자는 18%이며 4명 이하 자녀 수를 가진 자가 82%입니다. 대부분 2—3명의 자녀 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4) 평균 가족 수는 6.3명이며 5명 이상 자가 62명으로 85%를 차지하며 5—7명의 가족 수는 가장 많은 63%를 나타냈읍니다.

5) 근무중 가정 관리를 조사한 결과 식드 35명 (46%) 시어머니기타 친척 30—(51%) 없는 자 10명 (13%)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6) 간호 교육 경험

간호 고등학교 및 간호 고등 기술 학교 출신이 45명 (60%)이고 초급 대학 간호 학교가 12명 (16%), 양성소 및 경정 교시 출신이 18명 (24%), 초급 대학 출신 이상자는 없었읍니다.

7) 특수 교육 경험자는 유경험자 50명 (67%) 무경험자 25명 (33%) 나타났읍니다.

8) 교육 이수자 50명 (67%)을 내용별로 보면 간호원 교육 이수자가 37명 (48%) 중 1년 CP HN 과정 이수자는 불과 13명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5개월 이내 교육 이수 자이며 32명 (43%)는 2주 가족 계획 훈련 이수자 였읍니다.

9) 인문 교육 역시 고졸 이하 학력자가 50명 (71%)로써 대부분이며 대학 졸업자는 단 두명 뿐이었읍니다. 그러므로 교육면에서 전문 교육이 일반 교육 모두 낮은 교육 수준이라고 볼니다.

10) 경력 사항에서 5년 이상 보건소 근무 경력자는 24명으로 32%인데 비해 임상 근무 경력자는 35명으로 44% 였읍니다.

대체적으로 볼 때 보건소 경험보다 임상 경험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었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3년 이상 경력자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10년 이상 경력자도 상당 수가 있었을니다.

11) 현 직급을 살펴보면 단연 임시직이 약 63%나 차지하고 있었으며 수급 잡이 한명 정도로 많은 경력에 비해 낮은 대우를 받고 있음이 나타났으며 더욱 임시 직만 5년 이상 10년 가까이 종사하는 자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5급 이하의 직에 있는 자는 반수 이상이 현직에 계속 봉사하고 싶지 않은 자로 나타났습니다. 기회가 되는대로 타 직장으로 빠져 나갈 우려가 많은 자였습니다.

12) 보건 분야 훈련을 더 받기 원하는 자 34명(45%)보다 원하지 않는 자 38명(51%)이 많다는 것이 좋은 현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그만 쿨 타 직장이나 해외 취업에 관심도가 높은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13) 해외 취업 희망자는 자녀수나 결혼 상태와는 별 관계 없이 반수 이상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많은 자녀수와 배우자 동거자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를 해석해 본다면 이런을 원하기 때문이면지 아니면 이미 자녀가 거의 성장했기 때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14) 보건소간의 인사 이동은 대부분 원하지 않았고 보건소 취업 등기로써는 거리가 가까운 것 근무 시간이 편리한 것, 보건소 사업이 좋은 것 등이 있었습니다.

15) 간호 교육 이수 과정이 보건 사업 수행에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30% 이상 나왔습니다.

그러나 낮은 간호 교육 배경에 비해 그리 많은 편이 아닌 것은 실은 그 이상자가 자신의 교육배경이 도자립을 느끼고 있을지 모르지만 질문이 잘 듣 전달되어 충분히 듯을 전하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5. 결 론

1)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원들의 일반적 특징으로는 연령층이 비교적 높았고 대부분 기혼자였으며 2~3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었고 가정 상태는 핵 가족제 이라고 보았습니다.

2) 교육 배경으로는 간호 교육은 간호 고등 기

술 학교 이하가 대부분이었고 졸업 후 보건 분야 특수 훈련 과정 이수자도 비교적 적었습니다. 일반 교육 수준도 중졸 이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3) 경력사항을 보면 비교적 높은 수준입니다. 5년 이상 경력자가 약 40% 차지했고 10년 이상 경력자도 상당 수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직급은 대부분 5급 이하이며 임시직이 63%라는 놀라운 현상입니다.

4) 위와 같은 실태에 놓여 있는 이들 보건소 간호원들은 현직에 만족하는 자는 불과 13명(17.5%)에 불과했고 기회만 되면 해외나 타직장으로 가기를 희망했습니다.

5) 상당 수가 자기의 교육이 불충분하다고 느꼈지만 그렇다고 새 교육을 희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얻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조사자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간호원 전체) 노력에 의해 단기간에 해결될 것도 있겠지만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6. 제 언

1) 대우 개선 문제

- (1) 보건 간호직 수당을 책정 하는 걸
- (2) 유사시 특근 수당을 지급하는 걸
- (3) 직급을 올리는 걸
- (4) T.O.를 늘여서 임시직을 줄이고 업무량을 줄이는 걸
- (5) 능력에 따라 승진 기회를 주는 걸

2) 재 교육 문제

- (1) 의무 교육제로 하는 걸
- (2) 특수 교육 이수자에 대한 대우 보장하는 걸
- (3) 연구비 지원하는 걸
- (4) 능력에 따라 해외 보건소·파견하는 걸

3) 행정 조직 문제

- (1) 보건소 보건 간호과 설치하는 걸
- (2) 보건 간호과장은 보건 간호원이 하는 걸
- (3) 4급 이상의 직급을 확보하여 유능한 자의 승진과 더불어 장기간 계속 종사를 도모하

는길

참 고 문 험

1. 이성학, 홍경자, 보건 간호원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 및 취업 등기에 관한 조사, 1969, 중앙 의학 Vol. 18, No 5, May, 1970
2. 이경식, 보건 간호학 미문사
3. 김우실, 보건 간호학 수문사 1963
4. 이포희, 보건 간호 사업의 문제점과 미래상, 대한 간호 8 (2) 26-29, 1969
5. 김화중, 서울 시내 보건소 보건 간호원의 업무

활동의 기능 구조에 관한 조사 연구, 공중 보건
잡지 7 (2) 1970

6. 김준임, 김의숙, 조원정 : 보건 간호 실습 제도
을 위한 실태 조사 간호 학회지 제 1호 1970
7. John J. Hanlon: Principles of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Mosby, 1969
8. Maxcy-Rosenau,: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9th ed, New York, Appleton-
Country-Crofts, 1965
9. Winslow, C.E.A: Smilie W.G: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Macmillan Co., New York, p. 3, 1945



기생충 박멸협회 예방 공로상 수상

71년도 보건 장학생 선발

이화여고 양호실에 근무하는 김금란씨와 경기여고 교련교사 김경희씨(서울시 지부 이사)는 기생충 박멸협회로부터 기생충 예방에 이바지한 뛰어난 공로를 치하하는 공로상을 받았다.

또한 김경희씨는 「전국 양호교사의 임무 현황 조사 분석과 그 개선책 연구」라는 논문으로 71년도 보건 장학생에 선발되었다.